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 “현행 거리두기 강화 2주 더”

오미크론 확산 본격화
따른 정부 방침에 맞춰
오늘부터 20일까지 연장
확산세 잡기 위해 도청
산하 기관 채택근무 시행

전북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환자 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설 연휴 영향으로 향후 발생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별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방역패스 등에 대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한다.
최근 도내 일일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확산세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연장하고, 거리두기 해당 시설에 대해 위반 여부를 계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유흥업소 등에서 운영시간 위반 실내 체육시설 마스크 미착용 및 6인 초과한 사적 모임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청 및 산하 15개 공기업·출연기관의 전 직원 1/3씩 채택근무를 실시해 확산세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는 송하진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14개 시군 오미크론 대응 긴급방역 영상회의가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으로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엄청난 상황에서 이동량과 접촉 빈도를 최대한 줄이고, 감염확산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무서울 정도로면서 단기간에 10배 이상 급증해 검사 확진자·격리가 관리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도민들께서는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오미크론 치명률은

델타보다는 낮지만, 독감 보다는 2배 이상 높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타 지역보다 확산세도가 빠른 만큼 도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 쓰기, 이동·만남 자제 등 개인 방역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도청 및 산하기관부터 이동량 감소를 위한 특대책으로 채택근무를 적극 활용해 확산세 저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사회적 농업 중심지 ‘전북’

김제 꽃다비팜 등 사업 공모에 전국 최다 총 9개 선정
도, 선정 결과 따라 사회적 농업에서 유리한 위치 선점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다인 9개의 사회적 농장이 선정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사회적 농업은 장애인·독거노인, 범죄 및 학교 폭력피해자, 다문화 가정, 귀농 청년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을 농촌 현장에서 실천하는 새로운 농촌사회복지 개념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회적 농장은 ▲김제시 농업회사법인 꽃다비팜(아동·청소년 발달장애인 등), ▲익산시 농업회사법인 연화신병(지역장애인, 약물중독자 등), 농촌마을연구회(독거노인 장애인 등), ▲남원시 농업회사법인(주)레드(여성농업인, 지적장애인 등), ▲완주군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 해봄(보육 아동청소년, 시설 장애인 등) ▲무주군 농업회사법인(주)소호팜하우스(학교밖 청소년 등), 농업회사법인(주)파머스토프엔스(스카우트관 청년 등) ▲부안군 농업회사법인(주)이레농원(초·중고·청소년

지역 청년 등) 등 9개소다.
특히, 지역 거점 농장으로 선정된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별도의 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 있는 지역 서비스 공동체로 선정된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 해봄, 익산시농촌마을연구회’는 지역의 사회적 농업 확대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국적인 사회적 농업의 확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총 사업비 140억원)에도 이번 사회적 농업 선정 결과에 따라 전북도가 매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사회적 농업 공모사업의 성과는 그동안 함께 잘 사는 농촌을 만들꼬자 노력한 전북 삼라농정 기반이 이뤄낸 쾌거”라며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공동체 가치를 활용해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도시민이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정읍 육용오리 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축 확인

부안 증계 농장서도 확인

전북도는 지난 5일 부안군 부안읍 소재 증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일 부안 증계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정밀검사 중 약 6km 거리에 위치한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18천수, 32일령)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5명 항원 검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

정이며, 올 겨울 총 5건(부안 3, 정읍 1, 김제 1)이 발생했다.
도는 의심축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가의 이동제한, 소독 강화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북도는 “모든 가금농가는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폐사 증가, 산란율 및 사료 섭취량 저하 등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 발견 시 즉시 방역당국(☎ 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발생농장에 사육중인 증계 1만 3,000마리는 고병원성 확인 전 의심축 확인 즉시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내부정보 이용 공무원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도,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 마련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직자 토지거래 조사 예정

전북도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
도는 지난 4일부터 전북도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KH) 직원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 의혹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중 하나다.
도는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8월 지역정책과 등 18개 과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했으며, 인사혁신처에서 통보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신규취득 제한 대상자·부서·부동산의 범위, ▲예외적 취득

의 신고, ▲의무 위반시 조치(징계) 방안 등을 담았다.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것으로 증여, 실거주용 부동산 취득 등 예외적 취득 사유에 해당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예외적 취득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징계 등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침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말까지 부동산 유관부서 직원들이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기재한 재산 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작년에 실시한 공직자 토지거래 조사를 올해 부동산 관련 부

서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해 공직자의 재산 등록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2년 조사는 직전 조사 시까지 계획 또는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지, 주거지역 정비, 골포장 등 인근 토지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지 주변 1km까지의 토지거래 현황을 중심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부동산 관련 부서의 공직자와 직계 존·비속 등 재산등록 대상자의 범주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와 농지 등 부동산 취득의 목적 이행 여부 등이다.
감진철 감사관은 “이번 지침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기획전시
이흥재 사진전
남원, 달빛에 물들다
2021. 11. 24.(수) - 2022. 02. 27.(일)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갤러리2,3
*상설전시 "개화동동(開花冬冬)-겨울에 핀 붉은 꽃"-갤러리
전북 남원시 함파우길 65-14 T.063)020-5660
N K A M